



### 豫測錯誤가 特許出願 失期

美國의 조셉 월드먼 앤드 선즈 會社는 辨理士인 하리 G. 서피로를 시켜 「防水龍頭에 관한 改良」을 프랑스에 特許出願 하도록 했다.

대리를 맡은 하리는 프랑스의 現地代理人인 존 G. 서프알츠와 相議하여 그로하여금 1957年 10月 25日 출원케 했다.

그 후 日本에도 1959年 12월 10日에 優先權도 主張하지 않은 채 出願했으나 프랑스보다 뒤늦게 出願한 原因은 프랑스에서의 登錄이 公告되려면 2년 이상이 걸린다는 豫측에서 였다.

그러나 프랑스에 出願된 發明이 1959年 8월 24日에 豫상보다 빨리 公고되어 그 公報가 그해 11월 12日 日本特許廳에 보내짐으로써 그날부터 公知가 될 셈이다. 따라서 특허청은 그 프랑스 特許明細書가 일본에의 특허출원전에 存在하므로 出願前 公知라 하여 拒絶하였다.

거절당한 出願인쪽에서는 救濟規定의 適用을 東京高法에 提訴했으나 그 규정은 「특허를 받을 權利를 갖는 者의 意思에 反하여 發明이 公表된 경우」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判示하였다. 이 사건은 자기의 發明이 豫측의 錯誤와 慢心으로 特定國에의 出원이 늦어져 거절당한 例인 것이다. 先願主義國에서는 先出原이 특허등록의 必須條件이 된다. ■

### 나일론産業스파이 事件

日本の 「東레이」라고 하면 나일론産業體로서 屈指의 企業이다. 이와 경쟁상대이던 「日本레이온(株)」은 東레이가 개발한 「나일론」의 製造裝置가 탐이 났다. 지금으로부터 9年前인 1968年 東레이愛知工場 工務技術課主任으로서 부터 그 設計圖 등 極秘資料를 그 때 돈 500萬圓으로 사들였다.

이 나일론의 特徵은 그 동안 알려졌던 「나일론 6」보다 耐熱性·染色性·伸縮性이 優秀하며 東레이는 그 特許權을 300만 달러에 美國의 兪通社로부터 實施權을 사서 생산해 오든 처지였다.

문제는 이 事件이 어떠한 法的紛爭이 되었느냐에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東레이로 본다면 그從業員인 主任은 背任罪에 걸렸으나 日本레이온은 藏物歸買로 處理되었다. 極秘資料를 盜物로 본 것이며 日本레이온은 큰 罪가 되지 않은 데 焦點이 있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나일론産業스파이 사건이라 했다. ■

### 지우개鉛筆의 特許權取消宣告

鉛筆의 위끝에 지우개 고무가 달린 이른바 지우개연필은 1858年 3月 30日 美國 特許 19,783號와 1862年 11월 4일의 역시 미국 특허 36,854호였다. 前者는 리프만식이고 後者는 래켄돌프식인데 그 모두가 特許權은 얻었었으나 無効가 되었다.

事由는 특허된지 얼마 되지 않아 패버라는 사람이 미국안에서 지우개고무가 달린 연필을 만들어 市販하던 바 누 特許權者로부터 特許權侵害訴訟이 提起되었다. 그러나 美國最高法院에서 두 특허권은 모두 무효라고 宣告되었다. 그 理由는 연필과 지우개고무가 共同으로 發揮하는 機能

은 아무것도 없으며 서로의 기능이 자기 다르다는 것이었다.

리프만의 特許請求範圍는 製圖用鉛筆의 軸에 黑鉛과 彈力性 고무 등 글씨를 지우는 物質을 結合하여 전체를 組立配列한 것이 라고 했다. 그러나 裁고법원은 연필 자체는 어디까지나 물건을 그리는 器具이며 지우개고무도 지우개고무로서의 기능에 지나지 않으므로 兩者가 결합했다 해서 새 기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判斷이었다.

다만 本件判決에 判事가 全員一致가 아니었다는데서 物議를 자아냈으나 여기에 特記할것은 新規性과 進歩性의 문제라 하겠다. ■

### 意匠의 保護手段

어느 外國의 携帶用 핸드백製造業者가 意匠權을 取得한 후 그 製品을 海外로 輸出하고 있었다. 그러나 國內 同業者가 下請業者로 하여금 같은 제품을 만들게 하여 2,000個를 수출했다. 이것을 수 소문한 意匠權者는 前記한 同業者를 걸어 意匠權의 侵害損害賠償請求를 提訴하기에 이르렀다.

제조내용은 핸드백 1개에 1,500원씩의 純利益으로 推算한 300萬圓의 損害額을 배상하라는 청구였다.

訴訟結果는 被訴쪽이 裁判日에 出廷하지 않아 意匠權者의 주장대로 제조자가 勝訴한 것은 말한 나위가 없다. 이것이 남의 意匠權 無斷使用에 대한 制裁의 한 例이다. ■

